

일주문



관오사 가족법회서 법문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은 5월 6일 오전 10시 대구 관오사 일요가족법회에서 '주인 된 삶을 살자'는 주제로 법문한다.



은탄산업회장 수훈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4월 30일 은탄산업회장을 수훈했다.



파라미타 기금마련 서각전시회
김현 은곡사 주지 상목 스님은 대구 파라미타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서각 전시회를 4월 21~29일 대구불교회관 1층 목련갤러리에서 개최했다.



개금불사 회향 및 점안법회
청주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5월 6일 해인 스님(제주 약산사 회주)을 증명법사로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043)256-6254



연연 개기 체험행사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5월 5~6일 선원사 연지(蓮池)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연연개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32)933-8234



금속공예 전시회 개최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4월 28~3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금속공예 전시회 '구슬정원 II'를 개최했다.

5월의 환우에 자비의 손길을...

생명나눔실천본부, 김금희양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금희양(15·사진)을 5월의 환우로 선정,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



김금희양은 올해 초 감기로 입원했다 백혈병이라는 청진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현재 병원에서 연결해준 침터에서 지내고 있는 김양은 다행히도 언니와 조혈모세포(골수) 조직형이 일치해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월급으로는 월세 25만원과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듯해 가족들은 치료비를 마련할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도움을 줄 불자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후원계좌(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로 입금하면 된다.(02)734-8050

여수령 기자

“불교와 복지는 같은 말”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취임 일문 스님



종합복지관과의 연대를 통해 사업 교류와 지원도 모색한다.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매일 4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노인프라자’ 같은 복합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려 나가겠습니다.”

4월 2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원장에 취임한 일문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사진)이 25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불교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왔지만, 막상 현장에서 부딪쳐보니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만큼 불교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노인복지의 흐름을 선도하고 더불어 포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생활·문화·건강 복지사업은 물론, 인력개발과 정보지원·기획연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설문조사 활동 사업인 ‘탐리서치’, 초등학교 예절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직원 교육으로 불교사회복지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난 3월 개원한 구립 종로노인

이러한 일문 스님은 “불자들과 종단에서 불교복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문 스님은 조계종 13대 중앙종회의원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ews.com

중 고급평차사·보이차 명인 선정

한서대 정인오 교수...한국인 최초

정인오 교수(한서대 차학전공·사진)는 차(茶)계에서 ‘소인’이 많기로 유명하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자 국내 최초의 차업(茶業) 전문연구소인 한국국제차업연구소장 그리고 국내에 한 명뿐인 국제차품평위원회도 맡고 있다. 여기에 두 가지 직책이 이 번에 더해졌다. 바로 중국 최초로 실시된 1급 직업 자격인 고급평차사 자격증 취득과 중국 운남성이 선정한 ‘보이차 10대 인물’에 선정된 것이다. 두 분야 모두 한국인으로는 최초다.

정 교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품평과 제다 등 차 문화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 차 품평시험은 초·중·고급 평차원과 2급·1급 평차사의 5단계로 구분된다. 정 교수가 이번에 취득한 고급 평차사 자격 시험은 중국 노동부와 사회보장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또한 4월 6일에는 중국 운남성

이 선정한 ‘제2회 보이차 10대 인물’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대만, 홍콩, 일본 등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보이차 10대 인물’ 후보에 거론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정 교의 선정은 ‘패거’라 할 만한 성과다.

“불과 4~5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차 품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각종 품평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차 문화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차의 객관적인 품평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차 품평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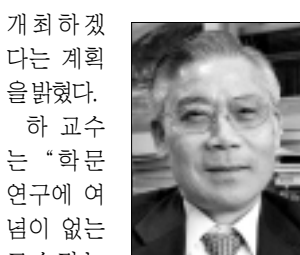
오는 11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2007 세계녹차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추대된 정 교수는 현재 한서대와 성균관대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신행과 연구 겸행에 최선”...부산 교수불자회장 하만경 교수

“부산교수불자회 회원들이 신행과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세미나를 통한 불교연구에도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4월 25일 부산시교수불자연합회 6대 회장에 취임한 하만경 교수(부경대 기계공학과, 법명 운곡·사진)는 회원들을 위한 신행·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회와 사찰순례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 교수는 “학문 연구에 여념이 없는 교수라는 직업 상 신행·수행 활동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들이 불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 대학별로 스님을 초청해 경전강의를 개최하는 등 신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봄·가을에는 세미나 결 토론회를 개최해 자신의 연구 분야와 불교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새터민 1만명시대...’ 영통포럼 국민토론회 개최

천태종 영통포럼(회장 무원)은 4월 19일 청주 명암타워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새터민 1만명 시대, 한국 사회의 과제와 합의 모색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거센 자본주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인 새터민을 먼저 살고 있는 남쪽 국민들이 잡아주고 북돋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임윤출 교수(경남대는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생산적 기여자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자립생활에 실패하면 안된다”며 “새터민의 한국사회 정착모델로 전원형 자립자족 정착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정우택(충북도지사), 김영희(충북회장(대한직업자사), 명장사 주지 화산 스님, 신영진(충북새터민공동체 회장), 이충원(원장(하나원), 이강락(사무총장(북한이탈주민후원회), 조영근(단장(새터민정착지원사업단), 안성호(교수(충북대), 송재봉(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용환(연구위원(충북개발연구원)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안면암 장학금 전달식



태안 낙도 포교원 안면암(암주 설암)은 4월 23일 안면암 큰법당에서 ‘제6회 안면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안면암은 2002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어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19명과 중학생 11명, 고등학교생 5명 등 총 35명에게 560만원을 수여했다.

동대병원·마하재활병원 진료협약



동국대 일신병원(원장 이명욱)은 3월 19일 거제 마하병원(이사장 정련)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련 스님과 이명욱 원장, 신동훈 마하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련 스님은 협약식에서 “두 병원의 협약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불교방송 개국 10주년 기념법회



청주불교방송(사장 지원)은 4월 23일 청주살내체육관에서 개국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과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불교방송 흥승기 사장, 남상우 청주시장 등 사부대중 5천여 명이 참석했다. 혜정 스님은 “10주년을 청주불교방송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밝혔다.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학술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동산대종사 열반 42주기를 맞이하여, 동산대종사의 불교정화 내용 및 사상을 재조명한 구술 증언 자료집인 ‘동산대종사의 불교정화운동’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동산문도회 스님 뿐만 아니라 정화불사를 겪은 원로 종진 스님 33명의 인터뷰 작업을 한 성과물입니다. 때문에, 이 자료집은 동산대종사의 불교정화운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화운동을 재조명, 재인식 할 수 있는 최대의 증언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산대종사 추모법요(5월 9일)를 갖기 이전에 학술세미나와 출판기념회를 갖고자 하오니 두루 참석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2007년 5월

동산문도회 일동 합장
범어사주지 대성



제1부 학술세미나

- 일시 : 2007년 5월 8일 오후1시
장소 : 범어사 설법전
대주제 : 동산대종사와 불교정화운동
기조발제 : 인환스님
사회 : 화강스님(동국대 강사)

- 발제1 - 백홍성의 승단정화이념과 활동 : 마성(동국대 강사) / 토론 : 혜원(동국대 교수)
발제2 - 동산의 불교정화: 김광식(부천대 교수) / 토론 : 법진(선리연구원장)
발제3 - 성철의 불교정화: 신규탁(연세대 교수) / 토론 : 김용환(부산대 교수)
발제4 - 홍성문도와 불교정화운동: 덕산(교단사연구소) / 토론 : 강동균(동아대 교수)

제2부 출판기념회

- 일시 : 2007년 5월 8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범어사 설법전

문의처 ☎ 051-508-3122(범어사), 508-3636(원주실)